

38세에 SK그룹 총수 돼 20년 맞은 최태원 회장

M&A로 재계 3위 도약… 사회적 가치 창출로 미래 대비

자산 6배·매출 4배·재계 3위 올려
‘뉴SK’ 강조… 딥체인지 구축 제시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자로 취임 20주년을 맞았다.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이 1998년 8월 26일 태계하면서 38세의 나이로 그룹 총수에 오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동안 최태원 회장이 이룬 성과는 매우 크다. 우선 기사적 성장으로 보면, 취임 당시 32조원이었던 그룹 자산은 2017년 말 기준 192조 6000억 원으로 6배 늘어났다. 매출은 36조원에서 158조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시가총액은 124조 9730억 원으로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이며 재계 순위 역시 5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4개인 SK그룹 계열사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01개로 늘었다. 고용 종업원 수는 약 2만 5800명에서 약 9만 4000명이 됐다. 같은 기간 동안 회사 당기 순이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월 14일 서울 종로구 SK 본사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SK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스

은 9700억 원에서 17조 3500억 원으로 무려 18배 상승했다.

대외적인 수출금액으로 보면 SK그룹은 1998년 말 8조 3000억 원을 수출했으나 2017년엔 75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매출 139조 원에서 수출 비중은 54%로 역대 최대 수치다. 그만큼 수출 산

업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SK그룹의 성장동력은 성공적인 인수합병(M&A)과 사업다각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SK그룹은 2011년 3월 3조 4267억 원에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그때까지의 에너지·화학과 이동통신 중심이던 기업 구조에 반도체를 추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었다. 이후 SK그룹의 ICT 계열사 수출액은 2012년 9조 5000억 원에서 2016년 17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작년부터 세계적 반도체 호경기의 영향을 받아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하이닉스는 매출 10조 3705억 원, 영업이익 5조 5739억 원, 순이익 4조 328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8월 SK는 반도체용 웨이퍼 제작업체인 LG실트론 인수를 마무리해 SK실트론을 출범시켰다.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난해 9월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문 인수자로 선정됐다.

SK그룹은 최근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제약 사업을 꾹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SK(주)가 7월 미국 바이오·제약 위탁 개발·생산업체(CD MO)인 암팩(AMPAC)의 지분 100%를 5100억 원에 인수했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해외 제약 회사 인수합병 규모로 사상 최대다. SK바이오텍은 작년 BM S(브리스톨마이어스스냅)의 아일랜드 생산시설을 1800억 원에 인수해 총 40만 L급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 회장은 6월 19일 경기도 이천 SKM S 연구소에서 열린 2017 확대 경영 회의에서 ‘뉴SK’를 강조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방형·공유형 경제 체제를 맞아 사회와 함께 하고, 사회를 위해 성장하는 딥체인지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방향 제시였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각 계열사는 공유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지속 경영 추진 담당’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제조 공정에

서의 환경오염 감소, 저전력 제품 생산, 협력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템을 찾기로 했다. 4월에는 사회적 가치(SV) 및 공유 인프라 플랫폼 설명회를 열고 반도체 지식과 노하우, SK하이닉스 장비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SK에너지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3500개 우체국과 3570개 주유소 인프라를 공유하자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오픈콜라보 센터를 통해 국내외 I CT업체 및 스타트업, 관련 대학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고 최종현 회장 20주년 추모 행사에서 “오늘 이 자리가 선대 회장을 추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겠다는 용기가 있는 한, 선대 회장님이 꿈꾸신 일등 국가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지난해 7월 한화큐셀이 RB라이프치히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큐셀

한화큐셀, RB라이프치히와 스폰서십 연장

한화큐셀은 독일 분데스리가 1부리그 소속 RB라이프치히와 스폰서십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RB라이프치히는 한화큐셀 독일 R&D 센터 인근 대도시인 라이프치히에 연고를 둔 축구단으로, 2009년 창단 직후 5부 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단 7년만에 1부리그로 승격해 2016/17시즌에서 곧장 2위의 성적을 거둔 팀이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당시 독일 대표로 활약한 티모 베르너와 스웨덴 대표로 활약한 포르스 베리 등이 소속된 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파트너십을 2019/20시즌까지 연장하게 됐다. 경기장 전광판 광고, 캠퍼펫 및 벤치 브랜

딩, 전용 VIP 관람 부스 등 기존 스폰서권한과 함께 축구게임 FIFA19에서 RB라이프치히 홈구장 래드볼아레나 선택할 시 게임 중 큐셀 브랜드가 노출되는 권리 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편 미국 세이프가드 및 중국 보조금 축소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유럽 시장은 한화큐셀에게 가장 핵심적 인 시장 중 하나다. 특히 유럽 시장은 대형 발전소와 더불어 주택용 및 상업용 태양광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유럽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B2C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직접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번 계약연장을 결정했다. /김유진 기자

SK인천석화, 업계 첫 ‘에너지 업사이클링’

공장 열원 활용 냉·난방 에너지 공급
인천 주거단지에 연간 28만 Gcal 규모

인천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의 열원을 활용해 지역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 업사이클링’ 사업이 업계 최초로 추진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 인천종합에너지, 청라에너지와 안정적 냉·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역 냉·난방 열원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인천석유화학 생산 공정의 열에너지와 집단에너지의 열 배관망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인천 지역 대규모 주거 단지에 냉난방용 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28만 Gcal(37㎿급 복합화력발전소 생산량)로, 일반 가정 4만 세대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그간 인천 지역은 송도, 청라, 가정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해 냉난방 열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열원 확보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냉·난방 열원공급’ 업무 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가 필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열 회수 공정시설 공사 등에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하고 SK인천석유화학은 공정 변경을 통해 양질의 열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조건을 갖춰 지역 상생과 지역사회 기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인천종합에너지와 청라에너지에는 추가 열 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원도심 내 안정적 냉·난방 에너지 공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열원은 기존 발전소 가동을 줄일 경우

연간 약 2만 7000톤의 LNG, 또는 5만 6000톤의 유연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연간 약 5만 톤의 온실가스 및 100톤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통해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열원공급 사업은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해 11월부터 열원 공급이 개시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T, 중소 단말 제조사와 비즈 파트너스 데이

SK텔레콤은 중소 단말 제조사들과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 파트너스 데이’를 SK서울캠퍼스에서 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즈 파트너스 데이는 중소 단말 제조사들이 신규 단말 출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키즈용 단말, 라우터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단말 제조사 모두, 인포마크 등 16개 제조사의 대표와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중소 단말 제조사에 신규 단말의 기획단계부터 출시 전후 마케팅 과정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상세 가이드를 제공했다. 아울러 중소 제조사가 겪는 사업적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SK텔레콤은 중소 단말 제조사에게 단말의 무선 성능과 재난 문자 수신 등 품질을 원활히 측정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단말 품질 측정랩을 개방한다. /김나인 기자



두산중공업이 델 EMC와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델 EMC 서울 사무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두산중공업 전략·운영부문 송용진 부사장, 델 EMC 김경진 본사 수석부사장 겸 한국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총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두산중공업의 발전 및 워터 분야 설계·제작·운영 역량과 델 EMC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발전 및 워터 서비스 시장도 함께 공략하기로 했다. 두산

/정연우 기자 ywj964@